

강단 아래에서 따뜻한 사람

A warm person under the pulpit

마가복음 3:20-21, 31-35

-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

1. 예수님의 형제들은(마13:55)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21절).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던 형제들이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약1:1).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고전15:3-8)
2.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35절). 그러나 동생 야고보에게 그 말은 평생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약 2:14, 17, 18, 22, 28).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가 된 적이 있었나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그 상처 된 말씀이 나에게 별이 된 경험이 있는지도 나누어봅시다.
3.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단 아래에서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은 ‘차갑게 혹은 분명하게’ 전하되, 그러나 우리의 삶은 ‘따뜻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강단 아래에서 따뜻하게’ 사는 것인지 서로 나누어봅시다.

